

인간 개발과 가정의 날

5월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이 나라의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어린이 날을 맞이한 갖가지 행사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듯한 미쓰 코리아 선발,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평생 그늘 속에서 희생의 생활을 하는 어머니를 찬양하는 어머니날, 등등 우리 주변에서 늘 음산한 사건만 보아오던 우리들에게 한결 밝은 촉감을 느끼게 하는 5월이다. 동해 바다의 정찰기 추격 사건으로 한 동안 우리를 격분시켰던 긴장도 좀 풀린 느낌이다. 이렇게 긴장과 건설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는 늘 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 우리네 가정 어린이들이 얼마나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산을 깎고 물을 막아서 옥토를 만들고 공장을 세워 수출을 증대하여 국민 경제를 증진시키는 일을 위해 온갖 힘을 집중시키는 동안 우리는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의 자산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과 소중히 하는 태도가 점차로 감퇴되어 가는 것 같다.

어린이는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기둥이요, 이 어린이를 구김새 없이 키우는 자리가 바로 가정이기에 우리는 어느 건설 사업에 못지 않게 우리 어린이와 가정을 키우는 일을 소중히 생각해야겠다.

요즘 흔히 사회 개발이니 인간 개발이니 하는 문제가 학계나 사회 단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말 자체가 풍기는 애매한 내용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 인상이다. 언젠가는 인간 개조라는 말이 한창 유행하다가 그것이 요즘에 와서

는 인간 개발로 변질했는지도 모른다. 근대화를 부르짖는 정부가 인구 문제나 사회 정화 문제를 다룰 때에 지나치게 계수나 통계에 신경을 쓰는 나머지 그 문제가 지닌 깊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향도 엿볼 수가 있다. 의료 시설의 발달로 영아 사망율이 줄어들고 평균 수명이 느는데다가 산아제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인구 증가는 막을 길이 없다. 늘어나는 인구는 농촌보다 도시에 집중하여 생활의 기반을 뒤흔들려고 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치열한 생존경쟁 때문에 온갖 도시를 중심으로한 사회악이 생겨진다. 이러한 연쇄적인 인과관계로 한차례 설명은 할 수 있어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는 계수나 정부의 통계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

해마다 봄, 가을이면 서울의 예식장은 초만원을 이룬다. 결혼식도 옛날과 달라서 속성으로 해 치운다. 여유있게 하려고 해도 뒤에 서 기다리는 다른 한 쌍의 신랑 신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오분이나 이십분 내에 예식을 치를 수 밖에 없다. 이리하여서 새 부부관계가 생기고 새 시부모, 시동생, 새 처가 식구들이 생겨서 새로운 인간 관계가 한 결혼식을 치를 때마다 거미줄 모양으로 엉켜져 생긴다. 아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 가운데 이 새 인간 관계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드물 것이다. 이렇게 날마다 생겨지는 새로운 인간 관계가 과거부터 물려 받은 전통적 가치 기준에 따라 살면서도 거기서 또 새로운 생활 양식을 창조해 나가기 마련이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거미줄 같은 새로운 관계에는 늘 윤리 문제가 수반되고 부부의 윤리,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 사위와 처가의 관계의 윤리가 저들의 사고와 행동을 규제할 것이다,

교회는 모름지기 이러한 인간 관계의 윤리를 근본적으로 다루고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이 인간 관계의 윤리야말로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 개발의 근본 성격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인간의 개발을 다룰 때에 비로소 기독교 신앙이 한 공동체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가정의 날, 어린이 날, 어머니 날 등 숭한 행사를 치루어도 한 번도 이렇다 할 인간 개발을 중심으로 한 연구나 행사는 가지지 못했다. 새 가정의 모랄이 무엇이며 새로운 인간 관계의 윤리를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며 또 어머니가 가정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윤리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다만 활달하게 자라나는 자녀들의 걱정이나 하고 어긋난 일을 저지르면 한숨만 쉬는 어머니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인간 개발의 최소 단위는 사회나 직장, 학교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가정이다. 그러기에 사회 변화는 먼저 가정 안에서의 인간 관계의 변화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다. 새로운 가정의 모랄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5월은 이 나라의 꽃이 활짝 피는 달이요, 또 꽃을 키우고 가꾸는 어머니의 달이요, 또 나아가서는 인간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 부푼 가슴을 품게 하는 달이기도 하다.